

# 허망한 줄 알면 그대들도 참모습 볼수 있네

## 경허 스님 수행 일화

### ㉔ 상여 가로 막은 무상설법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과 함께 먼 길을 나선 어느 날이었다.  
한 낮에 민가는 눈에 띄지 않는 첩첩산중의 길이었다. 두 스님은 시장기가 들기 시작했다.  
굽이진 산길을 돌아 어느 산마루턱에 당도했을 때 길 저편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색 포장과 깃발 같은 것들이 늘어져 있는 상여의 행렬이었다.  
고개 마루턱에서 쉬는 상여 행렬로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을 이끌고 다가갔다. 경허 스님이 상여 앞에서 열불 한 다음 음식을 청했다.  
“시장해서 음식을 좀 청합니다.”

경허 스님은 상주를 보며 답했다.  
“시장한데 한잔 하면 되지, 굳이 다른 말하게 뭐 있겠소.”  
어이가 없어진 상주는 술 한 대접을 듬뿍 떠서 내놓았다. 막걸리였다.  
한데 경허 스님이 술잔을 받지 않고 손을 내젓는 게 아닌가.  
“잔이 너무 작습니다. 차라리 바가지나 동이체로 주시오.”  
기가 막히면서도 기이한 스님의 행식에 흥미를 느낀 한 사람이 “어디, 동이 통째로 내 줘보지”하며 술이 가득 담긴 동이를 들어 경허 스님 앞에 내놓았다.  
경허 스님은 막걸리 한 동이를 단숨에 비우었다.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상주는 이 스님들이 틀림없이 도가 높은 스님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상주가 경허 스님에게 공손히 물었다.  
“무애행(無碍行)을 하시는 도가 높은 스님들 같은데 스님들의 자비로움으로 망인이신 우리 아버님의 명당을 하나 잡아 주실 수 없는지요?”  
상주의 말에 경허 스님은 느닷없이 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명당을 써서 뭐하게? 죽으면 다 썩은 고기 덩어리 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도 훗시나 망자를 위한 영험함을 보일까 기대했던 상주의 동생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울화가 치밀었다. 상제들은 주경꾼의 주사 같은 경허 스님의 말투에 어이가 없어 모두 달려들었다.

### 막걸리 한 동이를 단숨에 비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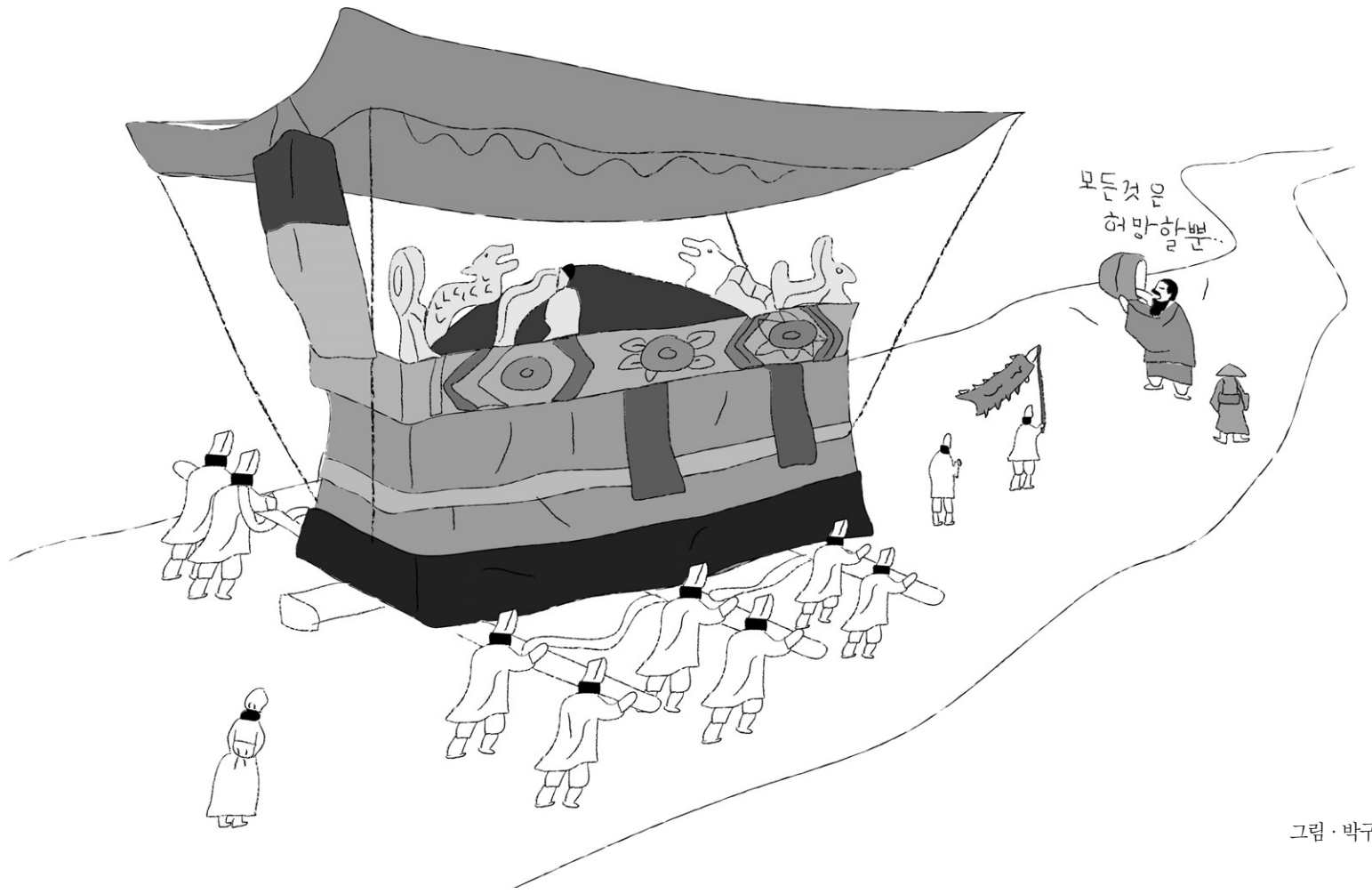
### 상주 “무애행의 도 높은 스님들

### 망인의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 “썩은 고기 덩어리에 명당이라니...”

한 상여꾼이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행상(行喪) 길이나 술 밖에 더 있겠습니까?”  
상여꾼의 장난에 경허 스님은 태연히 말했다.  
“술이 있으면 술을,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주시오.”  
술을 달라는 말에 상여행렬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따 참, 별 중들을 다 보겠네.”  
어떤 사람은 두 스님을 보며 빈정거렸다. 이때였다. 점잖은 상주가 나섰다.  
“아니 큰 스님들이 어찌 술을 달라하십니까? 곡차라고 하지도 않고...”

“스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남화경(南華經)>에도 있듯 사람이 죽으면 까막까치나 구더기의 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자라서 알아 범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손의 도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상주는 행상길을 재촉해 떠날 차비를 했다. 잠자코 있던 경허 스님은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다 허망할 뿐이니 죽고 사는 것 원래 그러하므로 만약 모든 것이 참으로 허망한 줄 알면 그대들도 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일세.”  
생멸의 실상을 설하자 이를 들던 상여 일행은 조용히 고개를 넘어갔다. 고개 너머로 상여의 구슬픈 소리가 바람결에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림·박구원

### ㉕ 밀씨와 파씨

경향 장곡사(長谷寺)에 경허 스님이 잠시 주석하던 때였다. 경허 스님이 곡차를 잘 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인근 마을 사람들이 곡차와 파전을 비롯한 여러 안주거리를 정성껏 마련해 공양을 올렸다. 마을 선비들과 술자리가 무르익은 뒤 옆에 있던 만공 스님이 선비들에게 범문 한 소절 해주시는 마음에 경허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저는 혹 술이 있으면 듣기도 하고,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이런 파전도 굳이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생기면 굳이 안 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범문 한 소절...”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의 말을 듣고 대꾸했다.  
“허어, 자네는 벌써 그런 무애 경계에 이르렀는가. 나는 그렇지 못하여 술이 먹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밀씨를 구해 밀을 갈아 김을 매고, 가꾸어 밀을 베어 털어서 누룩을 만들어 술을 빚고, 걸러 이렇게 먹을 테네.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씨를 구해 발을 일구어 파를 싣고, 거름을 주며 알뜰히 잘 가꾸어 이처럼 파전을 부쳐 먹어야 하겠네.”  
이 말에 만공 스님은 등에서 땀이 나면서도 오싹해지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이때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무애행 도리를 깊이 깨달았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6cm]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선원장 자격 박탈 및 멸빈

아래 사유로 대한불교화엄종에서는 선원장 자격 박탈 및 멸빈을 공고합니다.

- 자비선원 선원장 자격 리더십이 부족하다.
-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부산중무소 자체 불하 시킨 행위
- 멸빈 사유 : 종도들 간의 이간질을 한 행위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부산중무소를 실속시킨 행위
- 제출한 승적증명 모두가 허위로 기재된 행위

법 명 : 관 풍  
성 명 : 장형보  
주 소 : 부산 해운대구 중동, 자비선원

2012년 2월 18일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주머니 속 대장경 품절본 한정판매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지음 | 195쪽 | 값 4,500원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치수 옮김 | 205쪽 | 값 4,500원

**허공의 딸꼭질**  
이종찬 지음 | 282쪽 | 값 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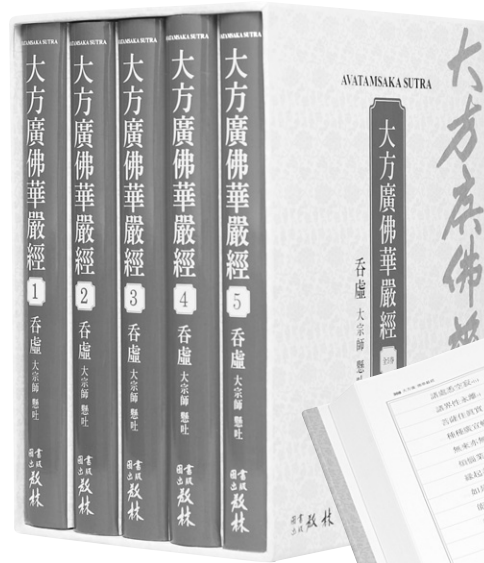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해능 스님 역음 | 329쪽 | 값 6,500원

현불샵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청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철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철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